

경제

■ SSM대항마 '나들가게' 가보니...

확 바뀐 매장... 고객·매출도 '쑥쑥'

고객관리·체계적 마케팅 기법 도입도 한몫

“가게가 환해졌네요. 주인 바뀐 줄 알았어요.”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총잡할 인마트를 운영하는 임현자 사장이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임씨는 6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그 사이 이마트 계열점, 홈플러스 계열점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임씨의 가게까지 여파가 미쳐 매출이 급락했다.

운영난으로 고민하던 임씨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나들가게'를 알게돼 새 희망을 찾았다.

고객들의 동선을 파악해 상품 진열을 바꾸고 매장 인테리어를 다시

한 뒤 끊겼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99㎡ 크기의 가게에 모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특히 카운터에 'POS(Point of sale)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매출 호조 상품은 물론 매장 방문객 숫자 등 마케팅 정보들을 꿰뚫어볼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임씨는 “나들가게로 새롭게 오픈하면서 손님들 반응도 좋고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게를 벤처마킹 하러 오는 슈퍼마켓 업주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나들가게는 지역 영세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들가게=중소기업청이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동네가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컨설팅은 물론 시설 리모델링, 상품 재배열, 포스(POS) 시스템, 교육 등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 간판 교체비용을 비롯해 점포 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1억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인터넷 쇼핑몰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에 대처하지 못했던 지역 영세상인들이 뾰족한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나들가게 신청도 붐몰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만 나들가게를 신청한 슈퍼마켓은 광주 154곳, 전남 243곳에 달한다.

김경남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나들가게가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비롯해 나들가게를 희망하는 점포들이 하루빨리 개점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슈퍼조합과 체인본부 등이 함께 서둘러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새집행부 선출 강행

강경파, 현 집행부 탄핵... 사측 “불법 용납 못해”

노조 집행부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금호타이어의 노노(勞勞)갈등이 노사(勞使)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5일 금호타이어와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강경파 노조원들로 구성된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올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대하며 노조 집행부를 탄핵,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6일 실시한 제 3기 노조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7%의 찬성으로 현 집행부

가 탄핵돼 후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민주노동자총 소속의 김봉갑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선관위는 5일부터 7일까지 공장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현 집행부와 회사 측은 “법원에서 집행부 탄핵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결을 무시한 이번 보궐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내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공대위의 투표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에

서의 투표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집행부도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퇴를 선언하고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 투표에서 선출된 집행부와 현 집행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집행부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노조갈등이 노사갈등으로 번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보궐선거에서 노조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날 선거는 강경파 노조원들의 주도로 실시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나들가게 '성공예감'

개점 한달새 점포 67% 매출 늘어... 고객 만족도 크게 향상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일구의 '베스트마트'는 지난 5월 나들가게로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매출이 30%이상 경증 뛰었다. 매장이 확 바뀌고 진열상품도 다양해지면서 고객들의 발걸음이 끈 것이다.

5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나들가게'가 개점한 지 한 달만에 최대 30%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등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이 1차로 개점한 광주·전남지역 나들가게 3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제 점점한 결과, 점포 67%가 매장을 새롭게 바

꾼 뒤 매출액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점 전보다 매출이 10% 이상 늘어난 곳이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10% 미만인 19%였다. 특히 점주들의 95%는 간판 교체와 사업 정보화 등 점포 환경 개선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는 현재 61개(광주 40곳, 전남 21곳) 동네 슈퍼마켓이 나들가게로 거듭났다.

광주·전남중기청은 8월 말까지 200곳의 나들가게를 점차적으로 개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골목상권까지 무분별하게 유린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나들가게를 육성하고 있다”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물류센터 운영, 공동 구매·배송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갖춰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켓트전기 리튬이온전지 설비 美 수출

145억대... 창사이래 최대

광주 분출산단에 있는 (주)로켓트 전기가 미국 전기 제조업체와 대규모 2차전지 생산설비 공급계약을 맺었다.

로켓트전기(대표이사 김성찬)는 5일 공시를 통해 미국 2차전지 업체인 보스턴 파워사와 1175만달러(약 145억원) 규모의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설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사이래 최대 규모다.

로켓트전기는 자회사인 로켓트이 엔티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국내 2

차전지 분야의 간판 대기업인 삼성 SDI와 LG화학에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설비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은 2차전지 사업의 특성상 이번 수출계약 이후 추후로 설비 증설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차전지 활용 분야도 자동차·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확산 추세여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켓트전기는 일본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원통형 2차전지 철관(캔) 시장에 뛰어들어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하기 시작했

으며, 올해에는 월 1000만개, 내년 말까지 월 3000만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형(EV형) 전지 생산설비도 개발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근속연수 최장' 포스코

직원 평균 19.4년... 여천NCC 2위

연봉 1위는 대우증권 9200만원

국내 대기업 중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포스코,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증권으로 조사됐다. 여천NCC는 근속연수 2위를 기록했다.

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금융업 독일에 작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8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업들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1.5년이었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포스코로, 19.4년이었고 여천NCC가 19.0년으로 2위를 차지했

다. 이어 현대중공업 18.7년, KT 18.5년, 국민은행 17.9년, 중소기업은행 17.5년, 한국전력공사 17.4년, 현대차 17.0년 등 순이었다.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5900여만원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9200만원을 기록한 대우증권이었고 삼성토탈(8700만원)과 코리아재보험(8100만원), 우리투자증권(8000만원), 여천NCC(7991만

원), 삼성화재해상보험(758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조사된 연봉액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장별 노동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천NCC 관계자는 “평균 연봉으로 거론된 7991만원은 교대근무에 따른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직원 900명 중 400명이 하고 있는 교대근무 수당을 제외하면 평균 연봉액이 1500만~2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675.37), 코스닥지수 (486.15), 금리 (3.85%), 원·달러 환율 (1,223.40원). Includes a note about exchange rate chang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실업부동산' (Daedong Unemployed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리울공인중개사' (Ariul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인생열쇠' (Life Key)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담공인중개사' (Adam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경매컨설팅(주)' (GG Auction Consulting Co.) with detailed tables of auction listings and contact info.